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귀농생활

이 종 란(권사, 완주 율곡교회)

배추는 엄마입니다.

배추 속 벌레를 잡으려하면

도르르 굴러 배추 품속으로 쑥 들어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배가 고프면 엄마의 살을 먹으며 살아가나 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배추 속 벌레를 잡으며 김장 준비를 해 봅니다.

해마다 이 배추를 먹을 수 있을까?

옆집 배추는 쑥쑥 커서 속이 차고 있는데

우리 집 배추는 앓은뱅이처럼 땅에 붙어

몇 번이고 보고 또 보게 합니다.

자급자족을 꿈꾸고 딸에게 고향을 만들어 주고 싶고, 나이 들면 노후에 좋겠다 싶어 시골에 온지 1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세월이었나 봅니다. 올 10월 권사 취임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인도하심이었기에 여기 이렇게 농촌에 정착하여 집도 짓고 땅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고백합니다.

십년 전 남편과 저는 별다른 계획없이 무조건 농촌으로 간다고 전라북

도 완주군 고산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 살 집을 부탁드렸습니다. 농촌으로 온다고 하면 빈집도 많고 땅도 많을 줄 알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 급하게 마을 가운데 있는 마을회관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으로 이사가면 마을 속에 들어가 마을 분들과 어울리며 살아야겠다는 평소의 소망이 이루어진 셈이긴 하였는데 사생활이 노출되어 적잖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시로 들락거리며 물을 달라는 아이들, 마을회관이라 옆방이 어르신네들 방인데 하루 종일 뽕짝거리는 음악소리와 술을 드시고 부르는 노래, 마을 행사 때마다 공개되어야 하는 집안, 늘 긴장된 생활이었죠. 그러면서 마을 분들과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필자

이사 첫 해에는 마을 길 가운데에 있는 밭 두 마지기를 임대받아 감자부터 시작하여 참깨, 들깨, 고구마, 콩, 채소 등 스무 가지 이상 심어 쌀만 빼고 자급하는 기쁨을 떨리는 기쁨을 맛보았지요. 농사는 무비닐, 무농약의 생명농법이었는데, 지나가시는 마을 분들이 “풀밭에서 아무 것도 못 먹는

다”, “풀약은 주어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저 웃으면서 ‘아, 예!’ 하였습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나보다” 하시고 “삼년은 도와 주신다더만, 약 안주고 먹네”라고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해엔 밭농사와 함께 논을 한 필지 임대받아 논농사까지 짓게 되었는데 논이 있는 곳은 자전거 타고 이십 분쯤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오리농법으로 논두렁에 오리망을 치고 오리막에 오리를 넣어 아침 저녁으로 먹이와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논농사하면 모를 심어만 놓으면 쌀을 먹는 줄 알았는데 어찌나 힘이 들던지요. 비가 오면 막아도 막아도 터지는 논두렁, 품을 살 줄도 모르고 혼자 한 필지의 논매기를 끝냈습니다. 그때 지쳤는지 지금도 논은 쳐다보기도 힘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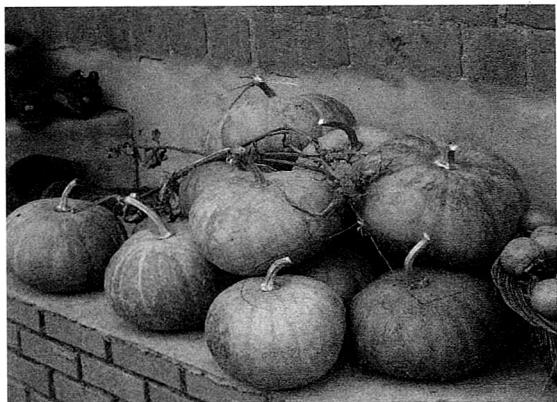
어렵게 나락을 팔러 수매하는 날 수매를 일찍 하고 싶어 일찍 갖다 놓았더니 처음이 맨 나중에 수매하는 순번이 되어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수매 시 무게를 달기 위해 톤백 자루를 들어 올리는 순간 나락이 쏟아지는 바람에 어찌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던지요. 어렵게 수매까지 마치고 받은 쌀값은 송아지 한 마리 값도 안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 장로님의 소개로 저희가 원하는, 산으로 둘러싸이고 마을 주민들과 약간 떨어진 곳에 땅을 구입하여 작은 집과 소막을 짓고 다음해 눈 오는 날 이사를 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며 마(魔)가 낀다고 하던가요? 이사 후 얼마 안 돼 저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은 제게 고통이었지만 또한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과정이기도 했으니까요. 기본적인 병원 치료 이후 오로지 몸 살리기, 마음 살리기에 집중하면서 봄이면 온 산과 들을 다니면서 고사리를 비롯하여 취나물, 더덕, 잔대, 도라지를 캐어 흙을 탁탁 털어내고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는 맛이란 온 산의 몇 십년 기운을 온몸에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봄은 저희집 밥상을 감동시키는 계절입니다. 10년쯤 산을 다니다보니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언제 나오는지를 알지요. 내년 봄에도 더덕을 봐 둔 곳이 있어 밥상에 올릴 계획입니다. 여름이면 옥수수, 감자 등 여러 가지 채소들이 기다립니다. 우리집 냉장고는 싱싱한 밭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기만 하면 되지요. 오이 나와라 딱딱, 호박 나와라 딱딱, 가지 나와라 딱딱...

가을이면 밤 줍기로 시작하여 버섯 따 오기. 참고로 밤 나무가 많은 곳에 가지 버섯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밤이 많아 밤 울(標)자 울곡리입니다. 밤은 이른 밤부터 늦은 밤까지 순서대로 '맛있다, 맛있다'하면서 먹습니다. 많이 주우면 나누어 먹기도 하지요. 가을걷이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 먹고 남은 것을 팔아 쓰기도 합니다. 들깨 한 말, 콩 한 말, 들기름 몇 병 등 작은 돈으로 돌아오지만 마음은 늘 부



농사지은 것으로 차린 밥상, 감, 늙은호박

자입니다. 겨울이면 김장하기, 고추장 담그기, 메주 쪄기. 농촌으로 온 이후 고추장, 된장, 간장은 직접 담아먹고 청국장도 꼭 띄어 먹습니다.

일 년을 이리 보내고 또 보내며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살맛나게 행복했는데, 이 좋은 곳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군(郡)에서 협조 부탁한다는 협박성 공문 앞에 얼마나 무력감과 분노의 마음을 느꼈는지. 개인 개인이 법이나 행정의 통제 속에 구속되어 있음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골프장 반대 대책위를 만들고 반대를 하는 사람, 찬성을 하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상처받고, 땅을 파는 사람까지 나오면서 떠나야 하나 하는 위기감을 느꼈지만, 저희 집 입장은 끝까지 싸우다 그래도 안 되면 나간다고 버틴 남은 자들 때문인지 온갖 마음고생 다 하게 하더니 지금은 골프장은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묶어 놓았던 고시를 풀어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입해 놓은 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문책을 피하기 위해 무엇인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아 계속 신경을 쓰이게 합니다. 무엇이 들어오든지 농사를 짓거나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유난히도 가물었던 올 봄에 천 평 땅에 콩을 심었습니다. 비둘기와 까치는 언제 콩을 심는지, 싹이 올라오는지를 어떻게 잘 아는지 활개를 치기에 차광막을 덮어 콩모를 길렀습니다. 그 사이로 비둘기와 까치는 어느새 들어가 올라오는 콩을 콕콕 뽑아 놓습니다. '저놈의 비둘기 새끼!' 하며 나를 뛰어 다니게 합니다. 어찌 약을 많이 올리는지. 너무 가물어 싹이 올라오지 않아 물을 몇 번이고 주어야 했지요. 옮겨 심을 시기가 되어도 가물어 콩 한 포기 한 포기 물을 주어 콩을 심고, 들깨도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들여 물을 주어 심었습니다. 며칠을 걸쳐 심고 나니 장마가 오고 풀이 자라고 어렵게 풀을 잡아주고 콩 가지치기를 하고 콩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쫓 태풍이 어찌 심하게 왔던지. 열매를 맺던 콩의 성장이 멈추어버린

듯 하였습니다. 콩 발사이 심었던 수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멈추어 버렸 습니다. 들깨는 알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모습에 허탈 하기만 합니다. 올 농사는 콩과 들깨에 중심을 두었는데 말입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 철 들깨를 털어보니 다섯 말이 나왔습니다. 두 마지 기에 다섯 말이니 흉년인 셈이죠. 그리도 제가 먹고 조금은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콩은 어찌 해야 할지. 다 बे지도 못했는데, 서리태는 등성등성 하나씩 달려있어 수확할 마음이 없고 두부콩은 빨리 털어야 매주 쭈고 청국장을 띄울텐데. 콩은 일부 수확 후 일주일애 두 번씩 오는 비 때문에 대책 없이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콩 터는 기계를 댈 수도 없는 상황이기 에 손으로 일일이 털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털어 봐도 콩이 줄어들지를 않네요.

그래도 농사꾼이라 내년 작부계획을 짜 봅니다. 내년엔 감자와 고추와 콩, 옥수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 다. 농촌이 어려워진다는 요즘, 귀농하여 몇 가정이 농사짓고 있는데 서로 힘주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농촌에서 버티자며 희망의 모임 '고산 행복한 농장'이라는 모임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었습니다. 또 지역 생명 생산자로 자처하여 서로 소농(小農)을 살리고 생협을 살리자고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배추는 벌레의 엄마, 저희 엄마는 아마도 눈을 뜨면 보이는 밭이며 산인 가 봅니다. 언제나 신선한 공기와 계절마다 바꾸어 입는 산들의 모습, 우리 의 먹을거리를 공급해주는 땅. 엄마 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농촌 을 떠나지 않고 땅과 생명과 먹을거리를 지켜 나가는 농사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